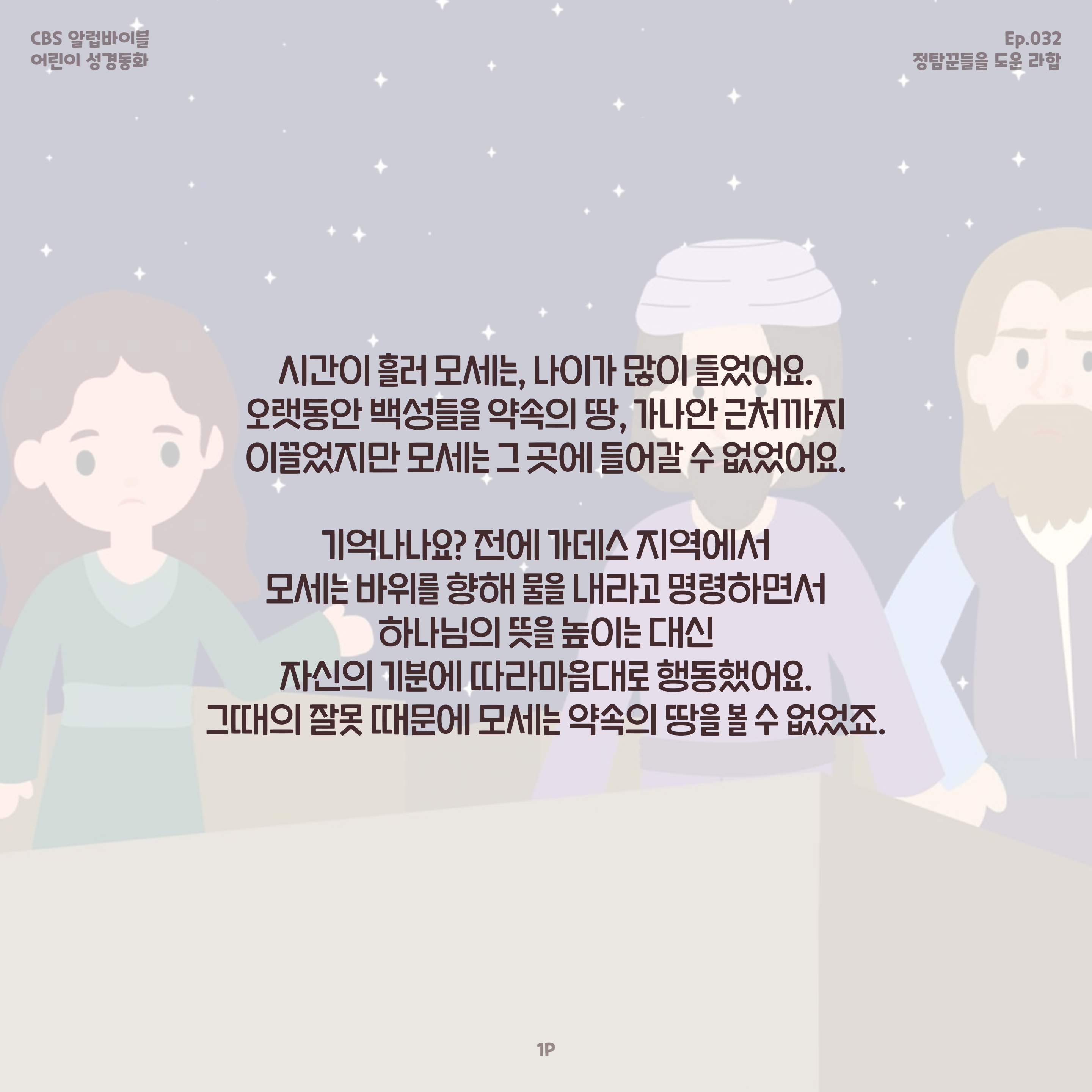
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32

#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

(민수기 27:12~23  
여호수아 1장~2장)



시간이 흘러 모세는,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.  
오랫동안 백성들을 약속의 땅, 가나안 근처까지  
이끌었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.

기억나나요? 전에 가데스 지역에서  
모세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 
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대신  
자신의 기분에 따라마음대로 행동했어요.  
그때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죠.

**“하나님, 비록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지만  
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골라주십시오.  
저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놔둬서야 되겠습니까...”**

**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 
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.  
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진 모든 능력을  
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따랐죠.**

**그렇게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.**

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 
위해서는 ‘여리고 성’을 지나야만 했어요.

여리고는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 
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 
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.  
그래서 여호수아는 부하 두 명을 따로 불렀어요.

“너희는 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라.  
가서,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정탐하고 오거라.  
절대 들이지 않도록 조심해 할 것이다.”

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 
마침 성문은 열려있었어요.  
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성안 곳곳을 살펴보고  
그러는 사이 어느덧, 어둑어둑 해가 지고 말았죠.

“괜히 밤에 돌아다니다가 경비병들에게 들켜지 않을까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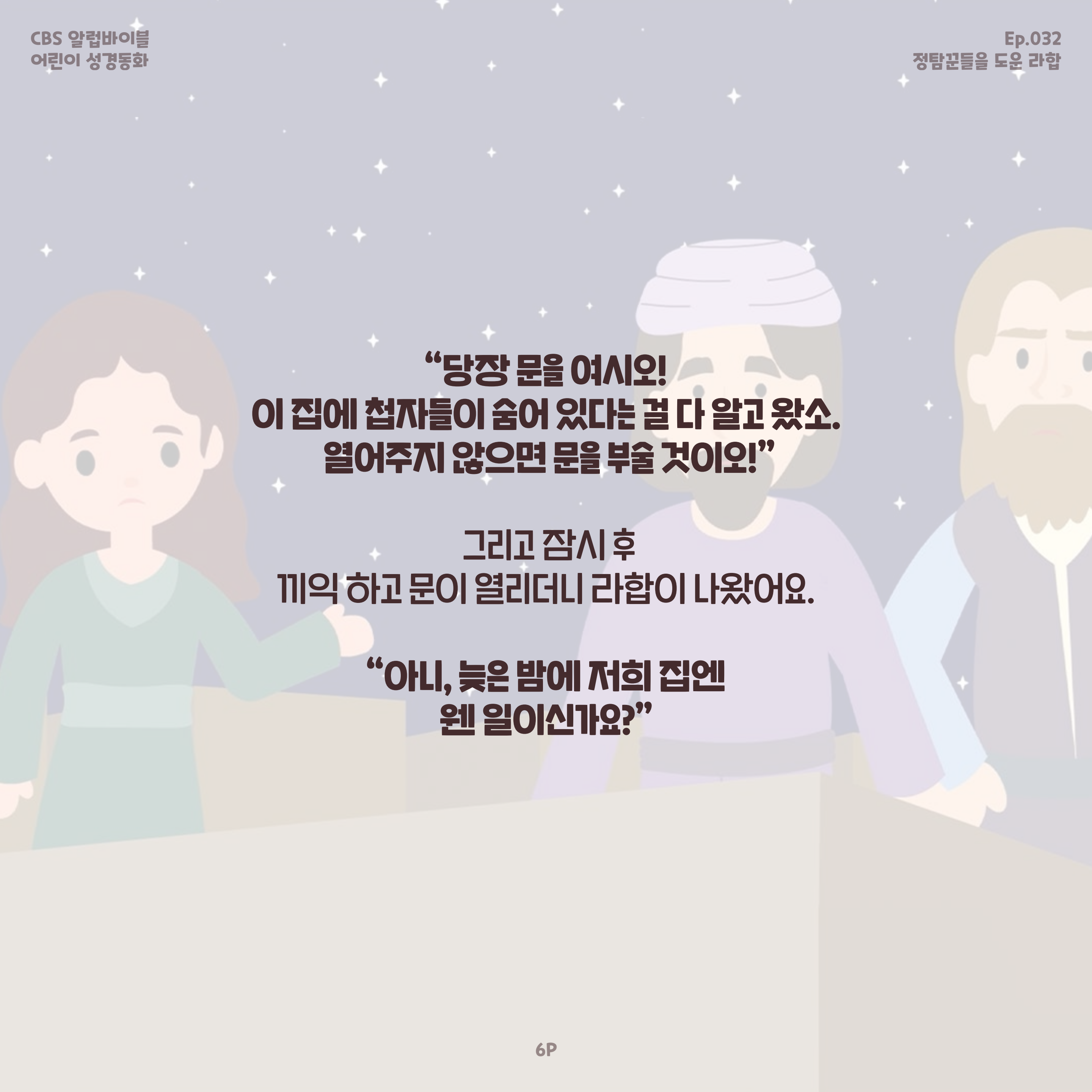
“맞아, 차라리 성안에서 몰래  
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동이 트면 떠나기로 하세.”

쉴 곳을 찾던 정탐꾼들은 ‘라합’이라는  
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

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!  
그 사람은 헐레벌떡,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갔죠.

“왕이시여! 왕이시여. 헉헉.  
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우리 성안에  
들어와 있습니다요!  
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걸  
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!”

깜짝 놀란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 
당장 병사들을 보냈어요.



**“당장 문을 여시오!  
이 집에 첩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소.  
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술 것이요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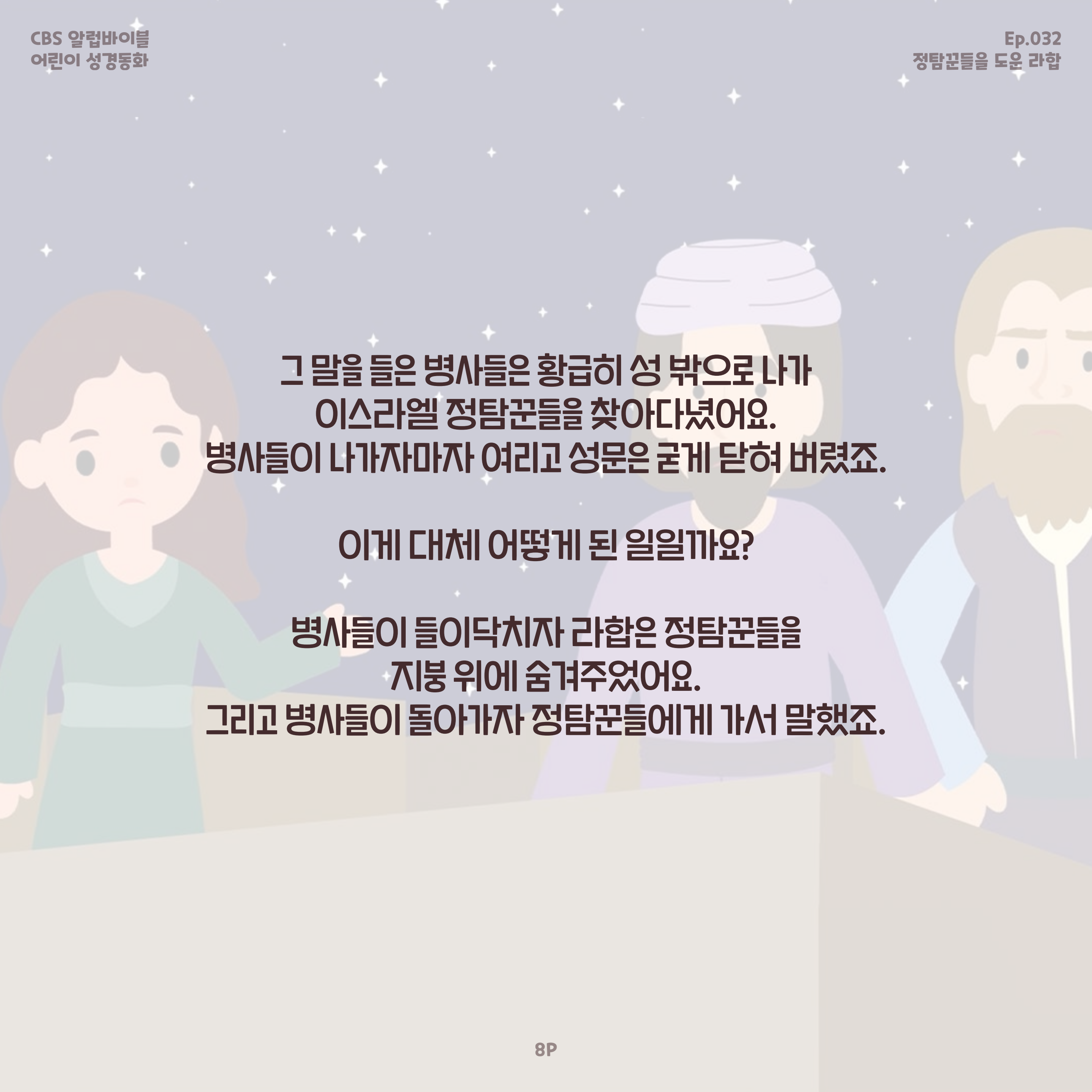
**그리고 잠시 후  
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라합이 나왔어요.**

**“아니, 늦은 밤에 저희 집엔  
웬 일이신가요?”**

**“다 알고 왔다.  
숨어있는 첩자를 데리고 나와라.”**

**그러자 라합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.**

**“아. 그 사람들 말인가요?  
저희 집에 낯선 사람 두 명이 오긴 왔는데요.  
그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갔어요.  
음... 지금 빨리 쫓아가면  
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?”**



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가  
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어요.  
병사들이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버렸죠.

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

병사들이 들이닥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 
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.  
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했죠.

**“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 
당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.  
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 
바닷물 사이에 길을 내 주신 것도 들었고  
그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.  
그래서 이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 
싸우는 걸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”**

**라합의 뜻 밖의 말에 정탐꾼들도 놀라서  
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.**

그중 한 명이 말했죠.

“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고  
친절을 베푼 것이요?”

“그렇습니다. 그러니 오늘 제가 베푼 친절을  
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 
우리 성 안에 들어올 때  
제 가족들만큼은 꼭 해치지 말아주세요.”

정탐꾼들은 라합의 현명함에 감탄해서  
곧바로 이렇게 약속했어요.

**“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.  
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 
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 
우라도 친절을 베풀 것 입니다.”**

**“맞소! 그때,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 
매달아 놓으면 그 표시를 알아보고  
아무도 당신의 집 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요.”**

**라합이 살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.  
약속을 받아낸 라합은 창문에 긴 밧줄을  
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보내 주었죠.**

**“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 
왕의 신하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 
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를 보아서  
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”**

**그렇게 정탐꾼들은  
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 
라합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 
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았어요.  
진영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 
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.**

**“여호수아님,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 
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!  
이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 
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!”**

**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우 기뻐했어요.  
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 
널리 알려지게 해주셨고  
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‘라합’처럼  
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죠.**

**그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 
모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했습니다!**